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 청소년과 성인의 심리적 적응과 사회변화에 대한 태도*

김혜은

서봉연

이순형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서울대학
심리학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독일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청소년과 성인의 심리적 적응과 사회변화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Leipzig시 성인 89명과 청소년 149명이 응답한 설문내용을 분석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자기효능감, 대처행동, 심리적 안녕감,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독일사회에 대한 태도 (독일사회의 발전방향, 동독지방 경제문제의 원인, 독일미래에 대한 신뢰도) 이었다. 분석 결과 동독 청소년과 성인들은 대체로 긍정적 자기효능감과 적극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성인들에 비해, 그리고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심리적 안녕감을 보이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성인들이 청소년들에 비해 통일 독일사회에 대해 더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핵심어: 독일통일 • 청소년/ 성인 자기효능감 • 대처행동 • 심리적 안녕감 • 사회변화에 대한 태도

독일 통일은 흔히 흡수통일이라고 불려진다. 제도적 통일은 전적으로 서독제도의 이식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동독지방¹⁾에서의 통일과정은 외부로부터, 위로부터의 영향을 받은 수동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동독지방 주민들은 기존조직의 철폐, 새로운 조직의 형성, 인력의 재배치 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구조적 개혁을 경험하였고 이는 개개인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통일이후 사회적 변화에 대한 중간 평가에서 제도적 통일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평가(Diewald & Mayer, 1996)와 아울러 사회 문화적 통일이 쉽지 않다는 지적(Trommsdorff, 1994)이 있었다.

급격한 사회 변화는 개개인에게 심리적 부담이 되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계에서의 도전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 본 논문은 1997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해외지역연구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동독지역(Ostdeutschland): 과거 동독(DDR)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통일이후의 지리적 구분임

통일이후 적응을 잘하여 새로운 기득권층으로 자리잡은 집단이 있는가하면, 적응에 실패하여 경제적, 심리적인 어려움과 함께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갖는 집단도 있다.

동독지방 주민들은 체제변화에 대해 양가감정(ambivalence)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통일이후 개인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증가하였지만 자유의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예전에는 간파했었다. 구체제에서는 최소한 경제적 안전감은 보장되었었다고 현재 경제적 불안 속에서 과거를 아쉬워하는 평가자들도 있다(Mayer, 1996). 특히 통일 이후 실업의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체제에 대한 비판과 불만(Witruk, 1999)을 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일의 결과에 대해 서독지방 주민들이 동독주민들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엄청난 통일 비용과 동독지방 재건의 장기화에 기인한 것이다. 동독 주민들이 불만족해하는 주요 요인은 갑작스런 사회적 변화와 높은 실업률이라 할 수 있다. 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간의 사회,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동독지방에서의 불평등 관계도 심화되었다. 동독지방의 경우 전반적으로 경제수준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지방간의 불균형과 동독지방 내에서의 불평등 경험은 주민들에게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하고 높은 실업률에 의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Witruk, 1999). 실직의 위험은 여성들에게서,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많이 나타났다(Betram, 1998).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 성인들이 실업,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수용해야하고, 자신들이 익숙한 가치관, 생활양식에 대한 평가절하로 정서적 문제를 경험했던 것에 비해, 청소년들은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넘어가는 발달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발달과업과 사회 문화적 충격을 소화해야하는 이중부담을 경험했다(Silbereisen, Schwarz, & Rinker, 1995). 통일 이후 교육이념과 교육제도의 변화로 동독지방의 청소년들은 새로운 교육과정과 수업방법에 적응해야했다. 과거 계획경제체제와는 달리 청소년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기회가 많아짐과 동시에 위험 부담도 커졌다. 특히 여학생들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변화와 가정과 직업의 병행이 어려워진 사회적 여건에 적응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부모와 교사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불안정해진 것도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Wagner & Sydow, 1996). 이와 같이 통일과 같은 거시적 사회변화 속에서 동독지방의 청소년과 성인들은 상이한 문제에 직면하고 나름대로의 적응전략을 사용하여 적응해야 했다.

체제변화에 적응하는 개개인은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Hurrelmann, 1991). 사회적 자원은 인간관계에 의한 지원체계를 말하는데 동독지방 주민들의 경우 가족, 친구관계와 같은 사회적 지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Kirsch, Franz, Herboth, Mallwitz, Meckelmann,

Regusch, & Aleksejewa, 1995; Schnabel, Baumert, & Oeder, 1994; Wagner & Sydow, 1996). 개인적 자원에는 스트레스 대처양식, 자기효능감 등이 포함된다. 스트레스 대처과정은 개개인이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여 자신의 행위양식을 활용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흔히 문제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로 구별되는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연령, 성별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Stone & Neale, 1984). 통일과 같은 급격한 사회 거시적인 변화 속에서 개개인은 자신의 문제를 주관적으로 인지, 평가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대처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이 때 자기효능감에 따라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내용과 크기에 따라 개개인의 대처방법, 즉 사회적 변화의 적응양식이 다르고 이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Seiffge-Krenk(1990)는 대처양식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서술하였는데, 능동적 대처를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높은 자기 효능감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이 상황에 대한 통제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도 덜 위협적으로 해석하고 삶의 만족도나 긍정적인 태도는 높게 나타나므로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변화에의 적응과정에서 중요한 개인 자원으로 기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이 된지 9년이 되는 시점에서 동독지방의 청소년과 성인들이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조건의 변화를 어떻게 소화해내고 자신의 개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변화에 어느정도 심리적

적응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효능감, 대처양식, 심리적 안녕감을 살펴보고 한다. 아울러 심리적 통일은 구성원들간에 연대감이 형성되고, 서로 이질적인 것에 대해 인정, 수용하며 미래사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게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므로 동독지방 청소년과 성인들의 통일 독일 사회의 변화에 대한 태도도 분석하려고 한다.

방 법

1) 조사대상

동독지방 Leipzig시 성인 100명과 청소년 1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성인 89명(남 49명, 여 40명)과 청소년 149명(남 75명, 여 74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의 연령은 14세에서 18세로 평균연령은 15.45세($SD = .76$)이다. 이들은 통일 당시 6-9세로 통일 전, 후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통일전의 사회화 조건과는 차이가 있는 맥락 속에서 성장하였다. 이중 인문계가 60명, 실업계²⁾가 89명이었다. 성인의 연령은 21세에서 59세($M = 41.72$, $SD = 9.13$)로 이들중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명, 실업자는 39명이었다. 학력은 대학 중퇴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 54명, 그 이하가 35명이었다.

2 실업계라 하면 동독지방의 Mittelschule를 말하며 10학년 이후 직업 교육을 받는다. 수료자는 대부분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하급 사무직, 기능직에 종사하게 된다.

2) 조사도구

(1) 자기 효능감 : Ulrich(1987)가 사용한 '자기효능감' 척도와 Jerusalem (1989)의 '일반적 능력감'척도를 혼합하여 Kabat, Petzold, Götze, & Coenen (1995)이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5개 하위영역이 6점 척도로 제시되었다. 자기 비하(3문항, Cronbach $\alpha = .72$ 예: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자기만족 (3문항, Cronbach $\alpha = .40$ 예: 나는 나 자신에 만족한다) 사회적 효능감 (3문항, Cronbach $\alpha = .69$ 예: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렵다), 신체/외모 (3문항, Cronbach $\alpha = .62$ 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나는 꽤나게 생겼다), 능력(7개 문항, Cronbach $\alpha = .80$ 예: 나는 노력만 하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한다)에 대한 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대처 행동 : Kabat, Petzold, Götze, & Coenen(1995)이 자신의 연구에서 사용한 대처행동 척도로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상황의 재해석 (3문항, Cronbach $\alpha = .64$ 예: 내 문제가 대수롭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상황 통제 (3문항, Cronbach $\alpha = .69$ 예: 원인 제거를 위한 해결책을 찾는다), 자신을 괴롭힘 (2문항, Cronbach $\alpha = .45$ 예: 나에게 화를 낸다), 수용 (3문항, Cronbach $\alpha = .51$ 예: 주어진 상황을 수용한다), 사회적 자원의 활용 (3문항, Cronbach $\alpha = .48$ 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다), 무반응 (2문항, Cronbach $\alpha = .55$ 예: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회피 (3문항, Cronbach $\alpha = .56$ 예: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피한다), 능력의 향상이 (2문항, Cronbach $\alpha = .59$ 예: 정보를 입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6점 척도로 제시되었다.

(3) 심리적 안녕감 : 심리적 안녕감을 조사하기 위하여 Zielke & Kopf-Mehnert(1978)의 '경험과 행동의 변화 척도'중 본 연구에 적합한 23개 문항을 선택하여 6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하위영역은 우울(6문항, Cronbach $\alpha = .90$ 예: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미래에 대한 불안 (4문항, Cronbach $\alpha = .80$ 예: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 암담하다), 통제가능성 (4문항, Cronbach $\alpha = .64$ 예: 나는 나 자신과 미래에 대해 분명한 그림을 그릴수 있다), 불확실성(2문항, Cronbach $\alpha = .59$ 예: 내 감정의 기복이 더 심해졌다), 정서적 안정(3문항, Cronbach $\alpha = .51$ 예: 마음이 안정 되었다), 자신감(3문항, Cronbach $\alpha = .55$ 예: 나는 자신감이 있다)이다.

(4)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 : 자신을 독일인으로 생각하는가 혹은 동독인으로 생각하는가를 선택하는 1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5) 독일 사회에 대한 태도 : Hofmann (1995)이 1991년 통일 직후 사용하였던 설문지 중 독일 사회의 발전 방향(예: 외국인 정책, 서유럽, 동유럽 지향 등 5개 문항), 동독 지방의 경제 문제의 원인(예: 급속한 통일, 동독지방의 정책, 과거 40년의 경제 실정 등 5개 문항)에 대해 '예, 아니오'의 선택문항을 제시하고, 독일 미

래에 대한 신뢰도 8개 문항(예: 시장경제, 민주주의, 정치인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6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6) 동·서독 주민의 특성 비교 : 가치관, 생활습관, 재산소유, 역사경험의 4개 영역에서 동·서독 주민의 차이점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3) 조사절차

성인 20명과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후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설문지를 제작하고, 독일 München 대학과 Leipzig대학 발달심리학 전공 교수들과 문항의 적합성을 논의한 후 성인들은 직장, 상담실, 교회, 조합 등의 경로를 통해 조사하고, 청소년들의 경우 교육청의 허가를 받고 인문계 1개교, 실업계 1개교의 동의를 얻어 총 6개 학급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청소년과 성인의 자기효능감, 대처행동, 심리적 안녕감의 집단간 차이를 ANOVA로 분석하고, 독일 사회변화에 대한 태도는 빈도분석, χ^2 로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처리에는 SPSS/PC+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결 과

수집된 자료를 통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자기효능감

동독 청소년과 주민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한다($M=4.29$, $SD=.81$)고 응답하고 자신의 사회적 효능감($M=4.45$, $SD=1.00$), 능력($M=4.08$, $SD=.68$)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신체/외모($M=3.83$, $SD=.82$)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로 평가하고 자기 비하는 별로 하지 않는다($M=2.12$, $SD=1.02$)고 응답하였다.

상호작용효과는 능력에 대한 효능감과 신체/외모에서 유의미하였는데, 능력에 대한 효능감은 특히 성인 여성의 점수($M=3.76$, $SD=.55$)가 다른 집단의 점수보다(성인남성 $M=4.31$, $SD=.77$; 남학생 $M=4.09$, $SD=.68$; 여학생 $M=4.11$, $SD=.64$) 낮았고, 신체/외모에 대한 효능감에서는 남학생($M=4.20$, $SD=.86$) 점수가 남자성인($M=3.76$, $SD=.64$)의 점수보다 높은 반면에 여학생들의 점수($M=3.49$, $SD=.82$)는 여성성인의 점수보다($M=3.88$, $SD=.62$) 낮아서 여학생들의 신체/외모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비하는 성인들($M=1.88$, $SD=1.01$)에 비해 청소년들($M=2.26$, $SD=1.02$)이 더 많이 하였고, 여성($M=2.32$, $SD=1.01$)이 남성보다($M=1.94$, $SD=1.00$) 더 하였다.

남성집단의 자기만족 ($M=4.49$, $SD=1.00$)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효능감 점수($M=4.17$, $SD=.72$)가 여성집단의 점수보다(자기만족: $M=4.09$, $SD=.88$; 능력: $M=3.97$, $SD=.63$) 더 높았다.

표1. 자기 효능감

	전체평균 (표준편차)		집단평균 (표준편차)	F	유의도
자기비하	2.12(1.02)	성인	1.88(1.01)	7.55	.006
		학생	2.26(1.02)		
		남	1.94(1.00)	6.15	.014
		여	2.32(1.01)		
		A×B		.75	.385
자기만족	4.29(.81)	성인	4.34(.68)	.31	.577
		학생	4.26(.88)		
		남	4.49(.70)	11.51	.001
		여	4.09(.88)		
		A×B		1.10	.295
사회적효능감	4.45(1.00)	성인	4.75(.98)	2.24	.135
		학생	4.37(1.00)		
		남	4.43(1.08)	.37	.542
		여	4.47(.90)		
		A×B		1.01	.315
능력	4.08(.68)	성인	4.06(.73)	.44	.503
		학생	4.10(.66)		
		남	4.17(.72)	8.07	.005
		여	3.97(.63)		
		A×B		9.63	.002
신체 / 외모	3.83(.82)	성인	3.81(.63)	.07	.782
		학생	3.85(.91)		
		남	4.03(.81)	7.91	.005
		여	3.63(.78)		
		A×B		15.16	.000

2) 대처행동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들이 대체적으로 상황통제(M=4.53, SD=.69), 사회적 자원의 활용(M=4.23, SD=.71), 능력의 향상(M=4.42, SD=.77)과 같은 비교적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자신을 괴롭히거나(M=2.84, SD=.91), 상황의 재해석(M=2.99, SD=.91), 회피(M=3.59, SD=.65)와 같은 소극적 내지는 부정적 대처방법은 비교적 적게 사용한다

고 응답하였다. 이를 다시 청소년과 성인의 집단간 비교를 하면, 성인이 상황의 통제(M=4.86, SD=.54), 사회적 자원의 활용(M=4.39, SD=.64), 능력의 향상(M=4.67, SD=.64)과 같은 적극적 대처를 더 많이 하고, 청소년들이 오히려 상황의 재해석(M=3.20, SD=.98), 자신을 괴롭히는 일(M=2.94, SD=.89), 회피반응(M=3.68, SD=.65)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의한 차

표2. 대처행동

	전체평균 (표준편차)	집단평균 (표준편차)		F	유의도
상황의 재해석	2.99(.91)	성인 2.62(.79)	A	22.92	.000
		학생 3.20(.98)			
		남 2.94(.96)	B	1.34	.247
		여 3.05(.85)			
		A×B		2.16	.143
상황통제	4.53(.69)	성인 4.86(.54)	A	32.72	.000
		학생 4.34(.70)			
		남 4.67(.74)	B	9.92	.002
		여 4.38(.61)			
		A×B		0.36	.580
자기를 괴롭힘	2.84(.91)	성인 2.65(.93)	A	5.28	.022
		학생 2.94(.89)			
		남 2.62(.96)	B	12.69	.000
		여 3.07(.80)			
		A×B		.08	.771
수용	3.35(.69)	성인 3.31(.73)	A	.41	.521
		학생 3.37(.67)			
		남 3.36(.67)	B	.019	.926
		여 3.34(.72)			
		A×B		.214	.652
사회적 자원 활용	4.23(.71)	성인 4.39(.64)	A	6.39	.012
		학생 4.14(.74)			
		남 4.33(.77)	B	4.92	.027
		여 4.12(.62)			
		A×B		.06	.796
무 반응	3.03(.93)	성인 2.96(1.01)	A	1.02	.312
		학생 3.07(.89)			
		남 3.18(1.01)	B	7.04	.009
		여 2.86(.83)			
		A×B		.03	.858
회피	3.59(.65)	성인 3.45(.63)	A	6.17	.014
		학생 3.68(.65)			
		남 3.56(.64)	B	.91	.339
		여 3.63(.66)			
		A×B		.56	.455
능력의 향상	4.42(.77)	성인 4.67(.64)	A	14.59	.000
		학생 4.27(.80)			
		남 4.51(.85)	B	3.22	.074
		여 4.33(.66)			
		A×B		.49	.481

이를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황의 통제(M=4.33, SD=.77)와 같은 적극적인
 제(M=4.67, SD=.74), 사회적 자원의 인 대처방법을 활용하거나 무시해 버리는

표3. 심리적 안녕감

	전체평균 (표준편차)	집단평균 (표준편차)		F	유의도
우울	2.56(.71)	성인 2.56(.58)	A	.02	.884
		학생 2.56(.77)			
		남 2.36(.63)	B	14.81	.000
		여 2.76(.73)			
		A×B		3.03	.083
미래에 대한 불안	2.89(1.08)	성인 3.07(1.18)	A	3.47	.063
		학생 2.79(1.00)			
		남 2.76(1.15)	B	1.83	.177
		여 3.03(.98)			
		A×B		4.82	.029
통제 가능성	3.58(.87)	성인 3.33(.85)	A	13.28	.000
		학생 3.73(.86)			
		남 3.75(.89)	B	8.19	.005
		여 3.40(.83)			
		A×B		2.35	.126
불확실성	3.37(1.19)	성인 3.37(1.41)	A	.001	.976
		학생 3.37(1.03)			
		남 3.28(1.21)	B	.947	.332
		여 3.46(1.15)			
		A×B		.176	.675
정서적 안정	3.85(.83)	성인 3.56(.84)	A	18.98	.000
		학생 4.02(.77)			
		남 3.96(.83)	B	4.01	.046
		여 3.73(.81)			
		A×B		1.37	.243
자신감	3.86(.87)	성인 3.19(.61)	A	24.92	.000
		학생 4.25(.76)			
		남 4.25(.76)	B	2.56	.111
		여 3.79(.74)			
		A×B		.35	.554

($M=3.18$, $SD=1.01$) 데 비해 여성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일($M=3.07$, $SD=.80$)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3) 심리적 안녕감

전체적으로 중간 정도의 정서적 안정($M=3.85$, $SD=.83$)과 자신감($M=3.86$, $SD=.87$)을 보이고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는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M=3.58$, $SD=.87$) 우울한 경향은 보이

표 4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

	전체빈도(%)	성인	학생	남	여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	120(52.6%)	30(34.5%)	90(63.8%)	60(50.4%)	60(55.0%)
동독인으로서의 정체성	108(47.4%)	57(65.5%)	51(36.2%)	59(49.6%)	49(45.0%)
χ^2		18.58	(.000)	.48	(.509)

지 않는 것($M=2.56$, $SD=.71$)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성별에 의한 차이는 우울, 통제가능성, 정서적 안정에서 나타났다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한 경향($M=2.76$, $SD=.73$)이 강하고 통제 가능성($M=3.40$, $SD=.83$), 정서적 안정($M=3.73$, $SD=.81$)에서 더 부정적 양상을 보였다.

청소년들과 성인의 비교에서는 청소년들이 통제 가능성($M=3.73$, $SD=.86$), 정서적 안정($M=4.02$, $SD=.77$), 자신감($M=4.25$, $SD=.76$)에서 성인에 비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호작용 효과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나타났는데, 남학생들이 미래에 대해 덜 불안해하는 것($M=2.54$, $SD=.96$)에 비해 남자 성인은 좀 더 불안해하였다($M=3.12$, $SD=1.33$). 한편 여성 성인($M=3.00$, $SD=.98$)과 여학생 사이($M=3.05$, $SD=.98$)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의 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4)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을 독일인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동독인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경우 동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비율이 비교적 낮은 데(36.2%) 비해 성인

의 경우 동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았다(65.5%).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5) 독일사회에 대한 태도

5-1) 독일사회의 발전방향

표 5-1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망명을 허용하고(68.8%) 서유럽 지향적이어야 한다 (69.7%)는 입장을 지닌 사람들이 많았다.

성인들 중에 외국인의 망명을 허용해야 한다든가 (94.2%), 자국의 이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비율(64.0%)이 청소년들보다 더 높고, 동유럽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성인의 비율(37.2%)이 청소년들에 비해 (51.4%) 더 낮았다.

한편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는다.

5-2) 동독지방 경제문제의 원인

현재 동독지방에서의 경제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통일 정부가 동독지방의 특수성에 대해 제대로 배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81.2%)이 가장 높았다. 그 외 40년간의 구 동독의 경제 실정(54.9%)과, 동독지방에서 여전히 무능한 구세대가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

표5-1. 독일사회의 발전 방향

	전체빈도	성인	학생	남성	여성
외국인에 대한 개방	116(49.8%)	38(44.2%)	78(53.1%)	56(46.0%)	60(54.1%)
χ^2 (유의도)		1.71	(.191)	1.53	(.216)
외국인 망명허용	155(68.8%)	81(94.2%)	74(50.7%)	77(63.4%)	78(70.9%)
χ^2 (유의도)		46.18	(.000)	1.47	(.225)
서유럽지향	164(69.7%)	61(69.8%)	103(69.6%)	83(66.4%)	81(73.0%)
χ^2 (유의도)		.001	(.978)	1.19	(.274)
동유럽지향	107(45.7%)	32(37.2%)	75(51.4%)	56(45.2)	51(46.4%)
χ^2 (유의도)		4.36	(.037)	.03	(.854)
자국이해 관심	103(43.6%)	56(64.0%)	47(31.8%)	57(45.6%)	46(41.1%)
χ^2 (유의도)		22.93	(.000)	.41	(.520)

문(94.2%)이라는 비판적 시각과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57.1%) 파악하고 있다. 반면에 급속한 통일 때문(44.2%)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비교적 낮았다. 통일의 속도에 대해서는 성인들이(61.2%) 학생들(34.5%)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동독지방의 특수성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귀인하는 비율도 성인에게서 더 높았다

(88.2%).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5-3) 독일미래에 대한 신뢰도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래사회의 어떤 점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족(M=5.23, SD=.85), 친지(M=4.78, SD=1.02)와 같은 가까운 조직망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다고 하였

표5-2. 동독지방의 경제문제

	전체빈도(%)	집단빈도(%)	χ^2	유의도
40년 경제실정	125(53.9%)	성인 45(53.6%) 학생 80(54.4%)	.01	.901
급속한 통일	103(44.2%)	성인 52(61.2%) 학생 51(34.5%)	15.62	.000
시장경제로의 전환	133(57.1%)	성인 55(65.5%) 학생 78(52.3%)	3.77	.052
동독지역의 인사정책	115(49.4%)	성인 36(42.4%) 학생 79(53.4%)	2.62	.105
동독지방의 특수성에 대한 배려부족	190(81.2%)	성인 75(88.2%) 학생 115(77.2%)	4.33	.037

표5-3 미래에 대한 신뢰도

	전체평균 (표준편차)	집단평균 (표준편차)		F	유의도
시장경제	3.33(1.08)	성인 3.51(1.13)	A	4.41	.037
		학생 3.22(1.04)			
		남 3.29(1.14)	B	1.02	.312
		여 3.36(1.01)			
		A×B		2.69	.102
정치인	2.39(1.04)	성인 2.14(.94)	A	7.44	0.07
		학생 2.54(1.07)			
		남 2.33(1.05)	B	2.32	.128
		여 2.46(1.04)			
		A×B		7.52	.007
인간 이성	3.99(1.24)	성인 3.90(1.28)	A	1.65	.193
		학생 4.05(1.21)			
		남 4.09(1.27)	B	5.60	.019
		여 3.89(1.27)			
		A×B		2.78	.064
민주주의	3.68(1.27)	성인 3.52(1.31)	A	2.03	.155
		학생 3.78(1.23)			
		남 3.70(1.41)	B	.01	.919
		여 3.66(1.09)			
		A×B		2.19	.140
주민의 응집력	3.94(1.10)	성인 3.71(1.08)	A	5.45	.020
		학생 4.07(1.10)			
		남 4.01(1.22)	B	.37	.542
		여 3.86(.95)			
		A×B		3.77	.053
조합	3.23(1.07)	성인 2.92(1.18)	A	11.78	.001
		학생 3.42(.97)			
		남 3.32(1.18)	B	.66	.414
		여 3.14(.95)			
		A×B		4.76	.030
친구/친지	4.78(1.02)	성인 4.59(.95)	A	4.00	.047
		학생 4.89(1.04)			
		남 4.66(1.06)	B	4.00	.042
		여 4.90(.95)			
		A×B		1.26	.262
가족	5.23(.85)	성인 5.36(.65)	A	2.90	.089
		학생 5.16(.94)			
		남 5.20(.95)	B	.25	.618
		여 5.27(.72)			
		A×B		.21	.648

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M=3.99$, $SD=1.24$), 주민의 응집력($M=3.94$, $SD=1.10$), 민주주의($M=3.68$, $SD=1.27$)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갖는다고 한 반면에 정치인에 대해서는 ($M=2.39$, $SD=1.04$) 가장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집단간 차이를 보면, 성인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 정도($M=3.51$, $SD=1.13$)가 더 높았고 청소년들의 주민의 응집력 ($M=4.07$, $SD=1.10$), 친구/친지에 대한 신뢰도($M=4.89$, $SD=1.04$)가 더 높았다.

한편 성인들이 정치인($M=2.14$, $SD=.94$), 조합($M=2.92$, $SD=1.18$)에 대해서 더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 차이를 보면 친구/친지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더 신뢰한다($M=4.90$, $SD=.95$)고 했다. 상호작용 효과는 정치인, 조합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성인 남성의 경

우 정치인 ($M=1.88$, $SD=.89$)에 대한 신뢰도가 남학생($M=2.63$, $SD=1.05$), 여성 성인($M=2.46$, $SD=.91$), 여학생보다 ($M=2.46$, $SD=1.10$) 낮았다. 조합에 대한 신뢰도도 남자 성인의 경우($M=2.83$, $SD=1.33$)에 가장 낮았다 (남학생 $M=3.63$, $SD=.96$; 여성성인 $M=3.03$, $SD=.97$; 여학생 $M=3.20$, $SD=.94$).

6) 동·서독지방 주민의 비교

동·서독지역 주민의 차이를 알아보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소유 재산 상태(92.4%), 가치관(87.3%), 생활습관(84.7%), 역사 경험(75.5%) 모두에 대해서 차이를 인정하였다. 특히 성인들이 가치관(100%), 생활습관(94.3%), 역사 경험(89.7%) 모두에서 그 차이를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6. 동·서독 주민의 비교

	전체빈도(%)	집단빈도(%)	χ^2	유의도
재산소유	219(92.4%)	성인 84(94.3)	.71	.398
		학생 135(91.2)		
		남 115(92.0)	.06	.804
		여 104(92.9)		
가치관	207(87.3%)	성인 89(100)	20.16	.000
		학생 118(79.7)		
		남 109(87.2)	.005	.945
		여 98(87.5)		
생활습관	200(84.7%)	성인 84(94.3)	9.88	.002
		학생 116(78.9)		
		남 112(89.6)	4.84	.028
		여 88(79.3)		
역사경험	179(75.5%)	성인 80(89.7)	15.27	.000
		학생 99(66.9)		
		남 99(79.2)	1.93	.165
		여 80(71.4)		

결론 및 논의

통일 이후 동독지방의 성인과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자기만족감과 사회적 효능감을 갖고 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보이고 심리적 안녕감 면에서도 중간정도의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을 보이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우울한 경향을 보이지 않아, 통일후 사회적 혼란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과 청소년들과의 집단간 비교에서 대처행동에 있어서는 성인이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숙된 모습을 보였다. 청소년들이 통제가능성, 정서적 안정, 자신감과 같은 심리적 안녕감에서 성인에 비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미래에 대한 신뢰감도 더 높은 것은 청소년들이 통일의 후유증을 덜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 과거의 잔재, 모순의 경험을 비교적 적게 하였고 실업과 같은 문제에 직접적으로 당면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여성집단이 남성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낮고 우울, 정서적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고 소극적인 대처행동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실업자의 67%가 여성이고 탁아시설의 이용조건이 악화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 이후 사회, 경제적 조건이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성의 실업은 단순한 경제적인 어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직한 여성들

은 과거 가정과 직업을 양립해야 된다는 이념 속에서 성장한 세대로서 '인간의 가치가 노동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회주의 인간관의 붕괴로 오는 정체성의 혼란을 더 경험하게 되었다. 여성의 실업은 또한 과거 친밀했던 직장동료들과의 관계망의 상실로 고립감과 같은 정서 문제를 초래하였다 (Betram, 1997).

통일 독일 사회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통일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동독 지방의 경제 문제 원인에 대해서 통일 정부가 동독지방의 특수성에 대해 제대로 배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상당히 비판적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특히 성인들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였다.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청소년들에 비해 성인들이 자신을 동독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하였는데, 이는 과거에 대한 향수일 수도 있고, 통일 이후 경험하는 사회, 경제적 불만의 표시일 수도 있다. 혹은 단순히 지역연고에 근거한 연대감의 표시일 수도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어떠한 해석이 더 적합한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통일 직후에는 동독지방 주민들이 자유의 신장, 민주주의의 실현과 생활수준의 향상과 같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전반적으로 통일 직후에 모든 문제가 단숨에 풀릴 것 같은 환상에 가까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2-3년이 지난 후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망감과 특히 실업과 같은 통일 이전에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히면서 그들은 통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를 보였다. 구 동독지역 주민들은 80년대까지는 사

회주의에 대한 환상을, 그리고 통일이 된 이후에는 시장경제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작업을 해야했다(Reißig, 1993). 이후 많은 연구들에서 93/94년을 기점으로 동독지방 주민들이 통일 이후 변화를 좀 더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정서적 적응도 호전된다는 보고(Friedrich & Förster, 1996)가 있었다. 최근에 작센지방을 중심으로한 연구(Witruk, 1999)에서 주민들이 행동과 의사결정 양식에서 안정성이 증가하고 자존감이 증가하며 억압, 정서적 불안정이나 우울한 경향이 감소되었으나 사회공동체를 위한 가치관이나 사회 정치적 참여는 약화되었다는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본 연구의 결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동독지방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긍정적 자기효능감과 비교적 적극적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통일 이후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개인 자원을 비교적 잘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성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청소년보다 더 가지고 있지만 그들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성인들이 청소년들보다 더욱 성숙한 적응양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독지역 성인들의 경우 동독지방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다든지, 통일 독일사회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 독일의 심리적 통일이 진행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청소년 집단의 경우 성인집단에 비해 이러한 경향이 약하고 또 심리적 안녕감도 더 높아서 앞으로의 적응을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게 한다. 독일 통일이 하

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미 70년대부터 경제, 문화에 걸친 광범위한 교류가 이루어졌고, 동·서독 주민간의 접촉에 기인한 것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동독주민들이 이미 동독의 사회주의 이념과는 상당히 거리를 둔 것이 체제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연구보고를 하였는데(Friedrich & Förster, 1996) 이는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문헌

- Betram, B. (1997). *Keine Wende zum Heimchen am Herd*. DJI Bericht.
- Betram, B. (1998). *Junge Frauen in Qualifizierungs- und Beschäftigungsmassnahm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rbeitsbezogene Jugendsozialarbeit*. Deutsche Jugendinstitut e. V.
- Diewald M. & Mayer, K. U. (1996). *Zwischenbilanz der Wiedervereinigung*. Leske + Budrich, Opladen
- Friedrich, W. & Förster, P. (1996). *Jugend im Osten*. Opladen : Leske + Budrich.
- Hofmann, J. (1995). *Identitätskonflikte, Reaktionen und Neuorientierungen in der ostdeutschen Bevölkerung beim Übergang in die Gesellschaf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KSPW-Forschungsbericht (unveröff.)
- Hurrelmann, H. (1991). *Sozialisation und Gesundheit*. Weinheim : Juventa.

- Jerusalem, M. (1990). *Persönliche Ressourcen, Vulnerabilität und Stressleben*. Göttingen : Hogrefe.
- Kabat vel Job, O., Petzold H., Götze, A., & Coenen E. M. (1995). *Bewältigungsverhalten von Schülern und jungen Erwachsen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KSPW-Forschungsbericht (unveröff.)
- Kirsch, B., Franz, W., Herboth, J., Mallwitz, G., Meckelmann, V., Regusch, L. A., & Aleksejewa, J.W. (1995). *Untersuchungen zu Problemerkleben und -bewältigung Potsdamer Schüler*. Forschungsbericht.
- Mayer, K. U. (1996) Lebensverläufe und Transformation in Ostdeutschland - eine Zwischenbilanz. In M. Diewald & K.U. Mayer (Hrsg.) *Zwischenbilanz der Wiedervereinigung*. Leske+Budrich, Opladen
- Reißig, H. (1993). Transformationsprozeß Ostdeutschlands. In H. Reißig (Hrsg.). *Rückweg in die Zukunft*. Frankfurt : Campus.
- Schnabel, K., Baumert, J., & Oeder, P. M.(1994). Wertwandel in Ost und West - Ein Vergleich von Jugendlichen und Erwachsenen in den neuen und alten Bundesländern. In G. Trommsdorff (Hrsg.) *Psychologische Aspekte des sozio-politischen Wandels in Ostdeutschland*. Berlin : Walter de Gruyter.
- Seiffe-Krenke, I. (1990). Developmental processes in self-concept and coping behavior. In H. Barma & J. Sandy (Eds.) *Coping and self in adolescence*. Berlin: Springer.
- Silbereisen, R.K., Schwarz, B. & Rinker, B. (1995). The timing of psychosocial transitions in adolescence :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unified Germany. In J. Youniss (Ed.), *After the wall : Family adaptations in East and West Germany*. Berlin : Walter de Gruyter.
- Stone, A.A. & Neale, J.M. (1984). New measure of daily coping : Development and preliminary resul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92-906.
- Trommsdorff, G. (1994). Psychologische Probleme bei den Transformationsprozessen in Ostdeutschland. In G. Trommsdorff (Hrsg.). *Psychologische Aspekte des sozio-politischen Wandels in Ostdeutschland*. Berlin : Walter de Gruyter.
- Ulich, H. (1987). *Psychologie der Krisenbewältigung*. Weinheim : Juventa. Wagner, C. & Sydow, H. (1996). Entwicklung und Sozialisation von Jugendlichen vor und nach der Vereinigung Deutschlands. In S. Hormuth, W.R. Heinz, H.J. Konradt, H. Sydow & G. Trommsdorff (Hrsgs.) *Individuelle Entwicklung, Bildung und Berufsverläufe*. Opladen : Leske + Budrich.
- Witruk, E. (1999). Transformation-

- sprozesse in Ostdeutschland - objektive und psychische Auswirkungen. *The Women's Studies*, 6, 9-52.
- Zielke, M. & Kopf-Mehnert, C. (1978). *Veränderungsfragebogen des Erlebens und Verhaltens*. Weinheim : Pelz Verlag.

Psychological Adaptation of Eastern German Adults and Adolescents after Reunification

Hyeon Kim

Bongyeon Suh

Soonhyung Yi

Mokpo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ty

After the successful politic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process in Germany the psychological reunification is reported not to be yet completed. The psychic wellbeing of individuals in the subsequent situations of the abrupt political collapse, which can be defined as a crisis situation, depends on how they use their personal and social resourc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ow Eastern German adolescents and adults have adapted in the changing society. Questionnaires containing self-efficacy, subjective wellbeing, coping, attitude toward the reunified German society were administered to 149 high school students and 89 adults. Results indicated that subjects had relatively high scores in self-efficacy and used active coping strategies. Adolescents and male subjects in general had higher scores in subjective wellbeing and future orientation. Adults showed more critical attitude toward the reunified German society.

Key Word: German reunification • self-efficacy • subjective wellbeing • coping